

3주차

한국 불교사의 전개와 원효, 의상

김 갑 동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한국 불교사의 전개

- 삼국의 불교 수용
- 통일 신라의 불교

03. 불교사의 양대 산맥 - 원효

- 불교사의 양대 산맥
- 원효의 일생과 사상

02. 고려와 조선시대의 한국 불교

- 고려시대의 불교
- 조선 이후의 한국 불교

04. 불교사의 양대 산맥 - 의상

- 의상의 일생과 사상
- 원효와 의상의 차이점과 공통점

3차시

불교사의 양대 산맥 - 원효

학습목표

-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불교를 확대한 두 인물, 원효 와 의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불교사의 양대 산맥
- 원효의 일생과 사상

불교사의 양대 산맥

원효와 의상

- 원효(元曉, 617~686) :
정토종(淨土宗)의 선구자
- 의상(義湘, 625~702) :
해동화엄종(海東華嚴宗) 창시자



원효

의상

원효의 일생과 사상

원효의 일생

- 아명: 서당(誓幢) 또는 신당(新幢)
- 법명: 원효(元曉)
- 출신지: 경상북도 자인

원효의 일생

- 아버지: 나마(奈麻) 설담날(薛談捺)
→ 6두품으로 추정

원효元曉의 일생

- 출가 : 15세
- 사승관계 : 일정한 스승을 모시지 않음
 - 법장, 낭지, 보덕 등에게 수학
- 유학 : 의상과 함께 두 차례 당 유학

시도(650년, 661년)

원효의 일생

- 주요 활동: 저술 및 민중포교
- 저서: 《금강삼매경론》, 《대승기신론소》

《십문화쟁론》 등 240여 권,

- 23권 현전

원효의 일생

■ 해로를 통한 당 유학 시도 :

충남 직산을 통과하는 중에 **토굴**에서
하룻밤을 지냄

직산에서의 깨달음

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생겨나고
마음이 없어지니 동굴과 무덤이 둘이
아니로다
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
인식이라
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곳에서
불법을 구하랴 ”

직산에서의 깨달음

“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*墳不二
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求 ”

*탑·감실 감

■ 일심유심조(一切唯心造) :

‘모든 만물 일체는 오직 내 마음이
만들어내는 것이다’

무열왕의 딸, 요석공주와의 만남

“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용하려나
내가 하늘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하는데 ”

- 하늘 바칠 기둥[支天之柱] = 설총
- 자신을 ‘소성거사(小姓居士)’로 지칭

원효의 사상

- 화쟁사상 : 통불교적 성향, 《십문화쟁론》
- 정토신앙 : 나무아미타불, 불교대중화
- 무애사상

“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길로
생사를 벗어난다
[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] ”

원효의 죽음

- 분황사에 유골을 모심
- 고선사에 ‘서당화상탑비’를 세움
- 고려 의천 : 원효의 저서를 요나라에 보냄
- 일본 불교에 많은 영향을 줌

SOURCES

[출처01] Wikimedia

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%EC%9B%90%ED%9A%A8%EB%8C%80%EC%82%AC_%EC%98%81%EC%A0%95.JPG

[출처02] Wikimedia

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%EC%9D%98%EC%83%81%EB%8C%80%EC%82%AC_%EC%98%81%EC%A0%95.jpg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I·M∞C

기획·조정
이진형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